

눈여겨 볼 만한 상반기 인문학 강좌

국립광주박물관 인문학 강좌는 수강생 모집 후 1~2일이면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전남대 박물관 강좌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도 인기 인문학 강좌가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정식 문을 여는 '시민자유대학'도 강좌를 준비했다.

돈키호테·피카소 만나고 철학·예술...생각 키우고

알타미라 벽화~산티아고 순례길...스페인 문화 산책

국립광주박물관

15일부터 150명 선착순 모집

지난 1982년 국립광주박물관이 시작한 '광주박물관대학'은 지금까지 '러시아, 그 영혼을 깨우다', '서양미술에 말 걸다', '한국의 미' 등 매년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주제는 '스페인,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4월 6일부터 6월 29일(매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스페인의 역사, 문화, 미술, 음악은 물론 영화와 종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조명한다. 오후 4시10분부터 5시까지 관련 다큐를 상영한다. 첫 강의를 '스페인 최초의 미술, 알타미라 동굴벽화'(강사 조태섭 연세대 교수)를 주제로 열린다. 이어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 '대항해시대를 이끈 스페인', '인류의 바이블, 돈키호테', '현대미술의 거장-피카소, 미로, 살바로드 달리', '산티아고 문화 순



민용태 교수 김남희 작가
레길', '스페인의 음식과 축제', '중세의 궁전과 현대의 가우디 건축' 등을 진행한다. 최해성 서울대 교수, 민용태 고려대 교수, 여행작가 김남희, 김승환 조선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스페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15일부터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문의 062-570-7043.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김진수 작 '청테이프 붙이고 달린 KTX'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보도사진전... 17~23일 광주 신세계갤러리

지난해 광주에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KTX 호남선 개통, 메르스 사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은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생생한 사진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사진기자들이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전남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최현배) 주최로 열리는 사진전은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인다. 지진이 덮친 네팔에서 랜턴빛에 의지해

수술을 했던 지역 의료진,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팽목항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순천만, 무등산 등 수려한 남도 경관 사진도 전시된다. 최현배 회장은 "보도사진은 사진기자들의 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기자들의 열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 2차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3월3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3차는 3월8일부터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한달 간 열릴 계획이다. 광주 신세계갤러리 개막식은 17일 오전 11시다. 문의 신세계 갤러리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현배 작 '갯벌단풍 칠면초에 물든 순천만'

전남대박물관

'미술, 신화, 역사 속 사랑'...3월16일부터 12차례 강좌

지난 1996년 시작된 전남대 박물관 강좌는 그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특히 강좌와 관련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함께 상영하면서 주제를 쉽게 설명해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사랑의 폴라주, 스토리'를 주제로 총 12차례 진행된다. 3월16일부터 6월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 신화, 역사 속 '사랑'을 살펴볼 예정이다. 첫 강좌는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옛 그림으로 보는 삶과 사랑'을 주제로 진행한다. 조선 후기 풍속화와 춘화에 대해 알려준다. 3월23일에는 손철주 학교재 편집주간이 강사로 나서 '시가 된 그림, 그림이 된 시'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왕과 왕비의 사랑'

(박계리 미술사학자), '조선시대의 남과 여, 그리고 애정'(강명관 부산대 교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빚어낸 예술가-오지호, 김환기, 천경자'(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르네상스 거장이 사랑한 프레스코'(노성두 미술사학자), '세기말 에로티시즘'(김홍섭 전남대 교수), '인도미술과 사랑'(이주형 서울대 교수) 등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또 '취화선', '페트라', '우먼 인 골드', '그녀에게' 등 영화와 다큐 '제국의 야망으로', '빛을 탐하다' 등을 함께 감상한다. 수강생 모집은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정원은 약 400명이다. 수강료는 11만원이다. 문의 062-530-3585.



손철주 학교재 주간

시민자유대학

바그너 음악 살펴보고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 강의

올해 공식 개강하는 시민자유대학(이사장 박구용)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배움을 이뤄가고 실천하는 대학이다. 설립과 운영 모두 시민이 중심이 돼 공공성을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민립(民立)'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워크숍과 '블금야행' 등을 시범 운영했던 '시민자유 대학'은 올해 6개 강좌를 개설했다. 3월 초부터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 장소는 장덕동 근대한국학 광산공공의화복지원센터다. 전대 HK 교수이자 음악 비평가인 최유준씨가 진행하는 '음악사와 음악미학'은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을 아우르는 강좌다.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에서는 브람스와 바그너의 음악을 살펴보고, '소나타

형식과 변증법 주제', '블루스와 대중 음악', '평균율과 수학적 합리성'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다. 전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진행하는 '철학하는 시민'은 '검은 역사, 출구 없는 성'(카프카와 벤야민), '진짜 이방인, 우리 안의 타자'(카뮈와 마르쿠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매력 있게 말하기(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건축의 안과 밖(이효원 전대 교수)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류도향 전대 교수) 등이 열린다.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cafe.daum.net/volkshochschule)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구용 교수

전남문예재단, 문광부 '무지개다리사업' 5년 연속 선정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에서 지역주관 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돼 국비 1억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무지개다리사업'은 국적, 인종, 성별, 세대간 문화 차이를 넘어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올해 '넓게 펼쳐라, 오색찬란한 남도 조각보III'라는 주제로 ▲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수용 ▲소수문화 표현 증진 ▲다양성 인식 제고 ▲문화 다양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소수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전남도민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및 문화다양성 교육 교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도내 문화다양성청년협의회도 구성한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섬진강 마추보다'를 주제로 광양과 경남 하동 주민들이 함께한 영호남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우수 등급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성천 소설집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이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오나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대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